

제1절 경영과 회계

1. 경영의 개념

자금을 투자하여 이익을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기업이라고 한다. 조직에는 이와 같이 이익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영리조직(profit organization)이 있는가 하면, 이익과는 상관없이 운영하는 비영리조직(nonprofit organization)도 많다. 예를 들면 친목을 목적으로 조직한 동창회,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학교, 고아원 등의 복지시설을 들 수 있다.

영리조직이든 비영리조직이든 모든 조직은 설립한 조직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일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주어진 인적, 물적 자원을 이용하여 합리적 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합리적 방안을 강구한다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기 전에 계획(planning)을 세우고 그 계획의 토대 위에 실행(action, do)을 하고 실행한 이후에도 그 결과를 평가(revaluation, see)하여 다시 본래의 계획에 피이드백(feed-back)시키는 일련의 경영 순환 과정뿐만 아니라,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가능한 한 비용을 적게 투입하되 그 결과는 크고 높게 하려는 효율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직이든 구성원들은 자금과 물자 등을 동원해서 끊임없이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평가하여 추진해야 할 업무에 대한 여러대안 중 최적의 선택이 되도록 판단을 내리게 된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process)을 경영(management)이라 하며, 그 대상은 영리조직은 물론이고 비영리조직에도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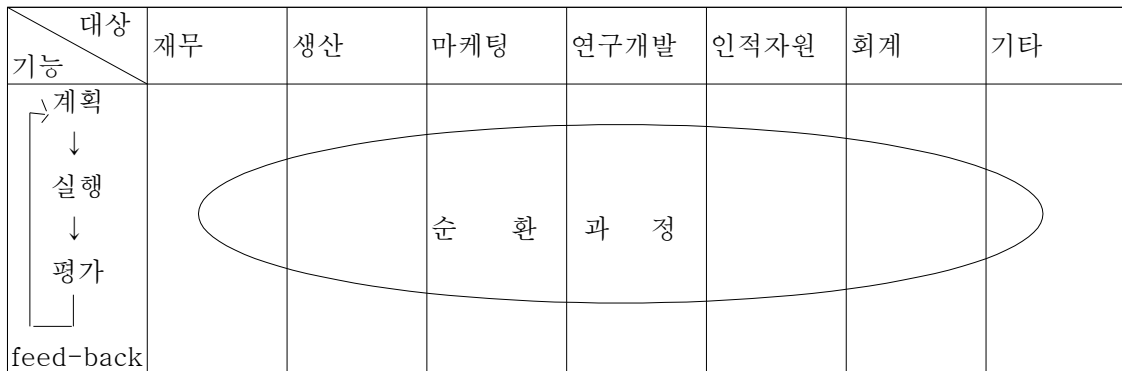
따라서 경영을 “조직의 목적을 효율(effectiveness and efficiency)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 그런 분야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학문을 경영학(Business Administration)이라 하며, 통상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을 주 대상으로 한다. 비영리조직 또는 정부의 경영을 일반적으로 행정이라 하여 구분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관리 cycle(Management Cycle); PDS or PDC; Plan, Do See(Check)

Leader의 경영 cycle; POSDCORB;

Planning, Organizing, Staffing, Directing,
Controlling & Coordinating, Budgeting

<표 1-1> 경영의 개념



2. 경영활동과 회계의 역할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서비스나 재화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에는 크게 재무활동(finance), 생산활동(production), 마케팅활동(marketing), 연구개발활동(research and development), 인적자원관리활동(personnel resources), 회계정보활동(accounting), 그리고 기타활동(others)의 7가지가 있다.

여기에서 재무활동이란 기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과 조달된 자금의 운영 활동을 말하고, 생산활동이란 생산자원을 유형, 무형의 제품이나 서비스로 전환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마케팅활동이란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홍보하고 판매하는 영업활동을 말한다.

그리고 연구개발활동이란 신기술과 새로운 공정의 개발 및 연구된 기술의 제품화 등을 도모하는 활동을 말하고, 인적자원관리활동이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의 선발, 교육, 배치 등의 종합적인 관리활동으로 흔히 인사관리라고도 한다. 마지막으로 회계정보활동이란 재화와 서비스의 영업결과가 어떠한지를 체계적으로 계산하고 정보화하여 필요로 하는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고, 기타활동이란 이상의 6가지 활동 이외의 경영관리(executive management)등 제반활동 등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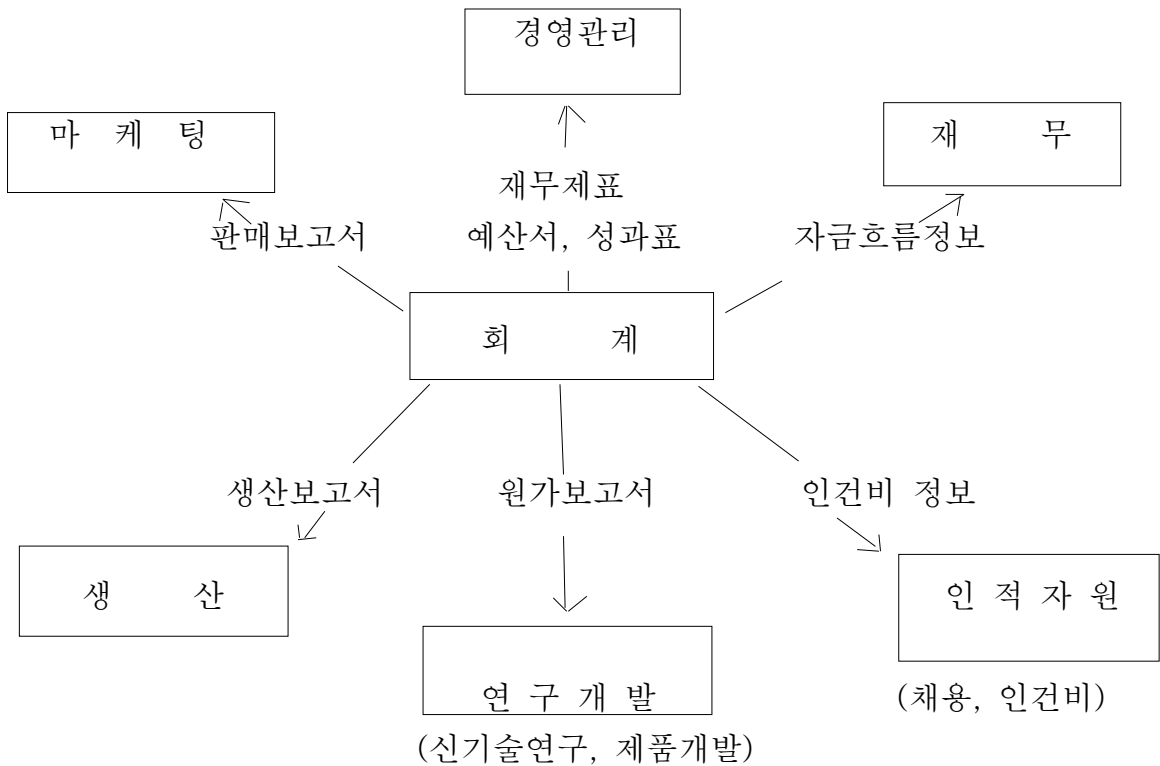
이상의 여러 경영활동은 기업환경의 변화나 경영자의 경영 방침에 따라 일시적으로 특정 활동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모두가 필수적이고 중요한 활동이다. 왜냐하면 각 활동의 유기적으로 결합하지 않으면 기업의 목적인 이익을 극대화 할 수도 없고 경영의 효율을 높일 수도 없기 때문이다. 한

편 기업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많은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숫자와 관련된 정보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숫자와 관계없는 정보만으로도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에서 정보(information)란 ‘전에는 몰랐던 사실을 새로 알게 해 주는 자료 또는 지식(knowledge)’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경영정보(management information)는 여러 정보 중에서 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활용 할 수 있는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화폐단위로 측정된 경영정보를 계량적 정보, 재무적 정보 또는 경제적 정보라 하고, 화폐단위와 관련이 없는 정보를 비계량적 정보, 질적 정보 또는 비재무적 정보라고 하여 구분하고 있다. 회계정보활동은 대부분 전자에 속하는 정보를 다루고, 상대적으로 인적 자원관리활동은 후자의 정보와 많이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회계정보활동은 재무적 측면에서 기업 내부의 다른 여러 활동에 아래 <표 1-2>와 같이 정보를 지원하며 유기적 역할을 하게 된다.

<표 1-2> 경영활동과 회계의 역할 (전사적 전략수립, 최종의사결정)



#새로운 세부적인 경영 Cycle; POSDCORB; 별도 설명

3. 회계정보 이용자

어떤 조직의 의사결정에 따라 이익이나 손해를 보는 여러 관련자를 이해관

계자(interested group, stakeholder)라 부른다. 오늘날에는 특정 기업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예를 들면 주주는 기업이 배당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라는 데에 이해가 걸려 있고, 자금을 대출하는 은행의 경우 기업에 자금을 대출할 것인지 아니면 대출할 금액을 회수할 것인가 등에 관한 이해가 걸려 있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의 경우 특정 기업으로부터 어느정도의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것인가의 이해관계가 있으며 종업원의 경우 어느정도의 임금수준과 복지 혜택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크다.

한편 이들 이해관계자는 기업의 정보를 이용한다 하여 정보이용자(information user)라고도 부르는데, 크게 내부이용자와 외부이용자로 구분한다. 내부이용자는 기업내의 이용자인 경영자집단과 종업원을 지칭하며, 외부이용자는 경영집단을 제외한 모든 이해관계자로 투자자, 채권자, 거래처, 고객, 세무당국, 지역주민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정보이용자들이 알고 싶어 하는 정보의 종류로는 신제품개발을 할 것인가, 시설투자를 할 것인가, 관심 있는 기업의 재산가치는 얼마일까, 채무는 어느 정도이며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능력은 있는가, 이익은 얼마나 창출하고 예상 배당은 어느 정도이며 미래의 이익창출능력은 어떠한가, 또는 창출한 부가가치 중 종업원 복지를 위하여 어느정도 사용할 수 있을까 등수 없이 많다. 정보이용자별로 회계정보가 사용되는 분야를 정리하면 다음 <표 1-3>과 같다.

<표 1-3> 정보이용자별로 회계정보가 사용되는 분야

내부이용자

1. 소유주/ 경영자

- 자원배분 (새로운 제품라인 도입 등)
- 제품과 서비스의 선택
- 종업원 충원
- 자금조달방법 결정

2. 종업원

- 고용전망 평가
- 임금협상

외부이용자

1. 투자자

- 미래의 투자 또는 회수 결정

- 최고경영자 평가

2.채권자

- 신용 제공 또는 회수 결정

3.거래처(공급업체)

- 제품 판매, 용역 제공 결정
- 신용평가(신용기간, 신용조건 결정)

4.공공이해단체(시민운동단체)

- 종업원 처우의 정당성
- 과도한 이익계상 가능성
- 환경침해
- 지역사회에 관심사항 제시

5.규제기관

- 이익의 제한
- 요금이나 가격 결정

6.세무당국

- 세액 적정성 평가
- 세법준수의 판단

7. 고객

제 2 절 회계의 개념

1. 회계의 의의

기록 내지 계산의 의미가 강하게 내포된 회계란 용어는 조선시대 이전부터 있었다. 한때 회계와 유사하게 사용하는 용어로서 계리라는 용어도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대부분 경리 또는 회계로 통일하여 사용되고 있다. 영어로는 거래를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어진 T계정(account)에 기록해서, 계산을 한다는 뜻이 담긴 accounting을 회계라 한다.

1) 회계의 정의

회계에 대한 최초의 정의는 1941년 미국 공인회계사회에서 내린 정의이다. 여기에서 ‘회계는 재무적 성격을 지닌 거래와 사건을 의미있는 방법과 화폐 단위에 의해 기록, 분류, 요약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는 기술’ (Accounting is the art of recording, classifying, and summarizing in a significant manner and in terms of money, transactions and events which are, in part at least of a financial character, and interpreting the results thereof.)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를 보통 회계의 기본기능에 초점을 맞춘 전

통적 회계 정의라고 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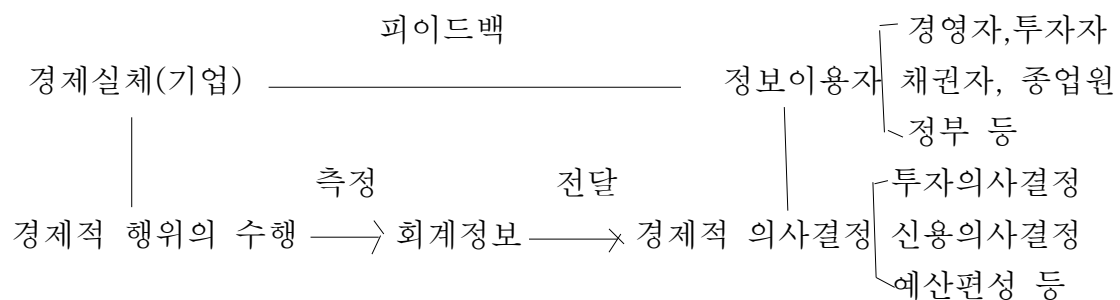
현대적 의미의 회계 정의는 1966년 미국회계학회(AAA)와 1970년의 미국 공인회계사회의 정의를 들 수 있다. 1966년에 미국회계학회에서는 ‘기초적 회계이론에 관한 보고서(A Statement of Basic Accounting Theory ASOBAT)’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회계는 정보이용자가 사정을 잘 알고서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정보를 식별하고 측정하여 전달하는 과정이다.”(Accounting is the process of identifying, measuring, and communicating economic information to permit informed judgments and decisions by users of the information)

한편 1970년에 미국공인회계사회에서는 미국회계학회의 영향을 받아 1941년의 회계정의를 정보이용자와 의사결정의 관점을 반영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있다.

“회계는 서비스 활동이다. 회계의 기능은 여러 대체 안 중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데 있어서,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하도록 경제 실체에 관한, 주로 재무적 성격을 지닌 양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Accounting is a service activity. Its function is to provide quantitative information, primarily financial in nature, about economic entities that is intended to be useful in making economic decision, making reasoned choices among alternative courses of action.)

<표 1-4> 회계의 과정



물론 회계의 대상은 기업의 경제적 행위뿐만 아니라 가계, 정부 등 모든 경제실체의 경제적 행위가 포함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회계의 주요 관심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업의 경제적 행위이다.

따라서 회계의 목적은 정보이용자들(information user)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useful information)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기업

이 수행한 경제적 행위를 정직하게 보고하도록 경영자에게 부과된 수탁책임(steward ship)의 이행을 중요시했던 전통적 회계와는 달리 회계정보의 전달과 이용 측면을 강조하는 현대회계의 관점이 되고 있다.

한편 회계는 조직의 구성원 또는 외부이해관계자들이 조직 내외에서 조직의 모든 형태의 활동에 대해 이해하고, 그리고 간단명료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직 전체의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하므로 조직의 언어(language of organization) 또는 기업의 언어(language of business)라고도 한다.

2) 부기와 회계

부기란 장부기록(book-keeping)의 준말로, 장부를 사용하여 개인이나 기업과 같은 경제주체의 재산의 증감 변화를 체계적으로 기록, 계산하는 방법 또는 기술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업을 중심으로 한 부기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업의 거래를 체계적으로 기록, 계산 요약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부기는 회계정보를 산출하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수행되는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기술적 과정으로 회계 영역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그러나 회계와 관련한 의사결정 정보는 장부기록 과정을 거쳐야만 생성될 수 있으므로 전반적인 회계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거래가 어떻게 인식되고 장부에 기입되며, 재무제표가 작성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장부기록 방법을 반드시 이해하고 습득하는 것이 기본이다.

오늘날 컴퓨터는 시간, 노력, 처리비용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정확성을 높여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계처리도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다. 다만 컴퓨터는 본질적으로 회계 담당자가 의사결정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회계처리과정에서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작업을 보다 신속하게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컴퓨터가 부기에 해당하는 많은 전형적인 회계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도구이지만, 회계시스템의 효율적인 설계, 구축, 감시 및 재무보고서의 분석, 활용 업무를 대신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업무에 능통하고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해에 걸쳐 회계지식의 습득과 실무경험의 축적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2. 회계의 기능

회계는 경제주체가 수행한 경제적 행위(이를 경제적 사건이라고 함)를 측정하여 회계정보(accounting information)를 산출하고, 산출된 정보를 정보이용자들에게 전달하면 정보이용자들은 경제적 의사결정(economic decision)에 이용되게 한다. 따라서 회계의 주요 기능은 측정기능과 전달기능의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1)회계정보의 측정기능

측정기능(measuring function)이란 기업에서 발생한 사건 중에서 경제적 사건을 식별해서 화폐로 환산한 다음, 기록, 분류, 요약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때 회계정보가 화폐로 측정되는 이유는 화폐단위가 가치 비교를 위해서 가장 유용하게 공통적인 척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폐단위로 측정할 수 없는 경제적 행위는 회계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의 경제적 행위를 회계정보로 전환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으로 복식부기(double entry book-keeping)가 이용되고 있다.

2)회계정보의 전달기능

전달기능(communication function)이란 회계시스템에 의하여 산출된 회계정보를 정보이용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업의 회계정보이용자는 불특정 다수이므로 이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공시방법(신문 공고와 인터넷을 통한 전자공시 등)을 이용한다. 그리고 전달 수단으로는 재무에 관한 여러 보고서라는 뜻의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s)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의 4가지 기본적 재무제표와 4가지 재무제표의 특정 항목이나 내용을 보다 자세히 설명하는 주석의 5가지로 구성된다.

3. 회계의 분류

회계는 보통 정보이용자에 따라 재무회계(financial accounting)와 관리회계(managerial accounting)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보통 기업과 관련하여 널리 사용되는 3가지 형태의 정보인 재무회계정보, 관리회계정보, 세무회계정보를 각각 제공해 주는 재무회계, 관리회계 및 세무회계(tax accounting)로 분류하기도 한다.

1)재무회계

재무회계란 회계정보이용자 중 외부이용자(투자자, 채권자, 종업원, 정부 당

국, 고객, 지역 주민 등)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회계를 말한다. 재무회계에서의 정보이용자 집단은 다양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각 집단의 정보 욕구도 다양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모두 충족시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충족시킨다 하더라도 엄청난 정보량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하여 재무회계에서는 정보이용자들 중에서 주된 정보이용자인 투자자와 채권자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재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무회계에서의 재무보고서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정보이용자의 상이한 목적에 모두 사용되므로 일반 목적(general purpose) 회계정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그 내용도 기업이 수행한 경제적 활동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므로, 보고시점에서 보면 과거의 재무정보 위주로 되어 있으며,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사용될 수 있게끔 보고도 기간을 정해서 정기적이고 주기적으로 한다. 또한 재무정보의 질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회계처리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GAAP)에 따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공인회계사(certified public accountant)에 의한 외부회계감사제도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재무회계는 그 수준에 따라 초급회계(회계원론), 중급회계 및 고급회계(합병, 연결재무제표, 결합재무제표 등을 학습)로 나눌 수 있고, 그 영역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영리회계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회계, 학교, 교회 등의 비영리회계로 나눌 수 있다.

2)관리회계

관리회계는 내부이용자(경영자)의 경영계획과 통제에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영자는 관리회계가 제공하는 정보를 가지고 기업의 전체적인 목표설정, 예산편성, 성과평가, 제품의 원가계산과 가격결정, 손익분기점분석, 신규투자 여부의 결정 등에 주로 활용된다. 따라서 관리회계는 경영의사결정의 유형에 적합한 회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관리회계가 제공하는 정보는 특정 의사결정에 적합한 정보가 되어야 하므로 특수목적(specific purpose) 회계정보라 한다. 따라서 관리회계의 정보 형식은 획일적 기준이 있을 수 없고, 그 내용도 주로 의사결정에 유용한 미래예측정보, 비화폐적 정보 등이 포함되게 된다.

3)세무회계

세무회계는 회계 분야에서 특수한 분야로 경영자와 세무당국에 세무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들의 재산이나 소득에 개별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적으로 반드시 법률에 의해서만 징수할 수 있는데, 이러한 조세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과세대상에 따라 소득세, 재산세 및 소비세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 중 개인사업소득 및 법인소득세 분야가 회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특히 법인세액은 재무회계에서 제공되는 경영성과 측정치인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해서 법인세법과의 차이를 반영해서(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세무조정이라 함) 계산하므로 세무회계는 특히 재무회계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최근에 세무회계에서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 분야는 세무계획이다. 세무계획(tax planning)은 기업거래의 세금효과를 사전에 예상해보고, 세금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분야이다.

한편 재무회계에 대한 공시자료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듯이 성실한 소득세의 납부세액을 공인회계사나 세무사(certified tax accountant)의 세무조정을 받아 신고하도록 하고, 불성실신고 등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 3 절 회계의 탄생과 발전

1. 회계의 탄생

인간이 모여 사는 그 순간부터 물물교환이 이루어지고, 회계의 역사도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체계적인 회계 기록은 파치올리(Lucas Paciloli)로부터 시작되었다.

1) 파치올리와 복식부기의 집대성

회계발달의 초기단계인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의 부기는 베니스왕국 등 이태리를 중심으로 발달하였기 때문에 이태리식 부기라고 부른다.

이태리식 복식부기를 집대성한 파치올리는 1445년 북부 투스카니 지방에서 태어났다. 그는 당시 회계 실무자들의 비결로 전해져 오던 장부 기록방법을 1494년 11월에 「산술, 기하, 비례 및 비율 총람」(Summa de Arithmetica, Geometria, Proportioni et Proportionalita, Everything about Arithmetic, Geometry, Proportion)이라는 책에 담아 출판함으로써 세계 최초의 부기문헌 공헌자가 되었다.

이 책은 ①대수와 산술 ②상업산술 ③부기 ④화폐와 교환 ⑤순수기하학 과 응용기하학의 5부로 되어 있는데, 복식부기법은 제11장(계산 및 기록에 관

하여)에서 설명되고 있다.

파치올리는 젊었을 때 프란시스코 수도회에서 일반교육과 종교교육을 받았고, 그 후 베니스로 가서 수학을 교수하고 연구하다가 상업과 부기에도 정통하게 되었다고 한다. 노년에는 고향에 있는 산세팔크로(San Sepulcro) 수도원의 원장이 되었고, 로마 교황 레오 10세의 초빙에 따라 로마대학에서 수학을 강의하기도 하였다.

2)우리나라 사개송도치부법

서양의 복식부기는 괴테(Goethe)가 말하였듯이 인간의 지혜가 낳은 가장 위대한 발명의 하나로 인정되어, 중세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발달하여 세계로 전파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복식부기가 우리나라에서도 일찍이 독특한 방법으로 발전하여 왔으며, 그 발생 시기도 서양보다 200년 이상 앞선다고 한다.

그 증빙자료가 명백하게 발견된 것은 아니나 고려시대의 개성상인들이 그들만의 독특한 장부작성요령으로 사개송도치부법을 사용하였고, 이는 그 내용과 근본원리에 있어서 서양의 복식부기와 일치할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나 실무상으로도 손색이 없다고 전해지고 있으나 관련문헌이 남아 있지 않아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다.

2. 현대회계의 발전

1)산업혁명과 회계

회계는 18세기 중엽까지는 고용주를 위한 사적 서비스(private service)기능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 대량생산체제로 바뀌면서 기업 규모도 크게 변모되었다. 이러한 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운영하는 기업경영방식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고 이들 공동출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회계보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들 기업의 회계처리를 외부에서 도와주는 공적 회계담당자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2)철도회사의 등장과 감가상각 방법의 확립

철도시설이 영구적으로 이용될 것으로 착각했던 당시 철도회사 경영자들은 감가상각이란 개념을 생각하지 못하여 당기순이익을 과대 산정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과대한 배당금 지급이 이루어졌고, 결국에는 원초자본까지도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오류를 범하다가 급기야는 자본잠식이 되면서 파산을 맞게 되었다. 철도회사의 파산은 감가상각의 필요성을 깨우쳐 주는 계기를 제공했다.

3)주식회사제도의 발전과 발생주의의 확립

19세기 말부터 본격적으로 발전된 주식회사제도는 불특정 다수의 주주 및 투자자집단을 탄생시켰다. 이에 따라 기간손익에 대한 정보가 중요시되었으며, 기간손익 결정방법은 현금주의(cash basis) 대신 발생주의(accrual basis)에 따르는 방식이 점차 확립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기업의 이해관계자 범위도 크게 넓어졌으며, 이로 인해 회계의 보고기능이 대폭 확대되었다.

4)대공황의 발발과 회계 감사제도의 실시

1920년대 말의 뉴욕 증시시장의 붕괴를 시초로 세계대공황이 발생하자, 그 책임의 일부는 자유방임적 회계제도에 있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즉, 많은 기업들이 실제보다 훨씬 낙관적인 회계정보를 공시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로 인해 기업들을 과대평가한 투자자들이 주가를 턱없이 올려놓았다는 비판이 있었다. 따라서 대공황은 미국 정부로 하여금 회계처리기준을 제정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각 기업이 이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지를 외부의 전문 감사인이 독립적으로 검토하는 회계감사제도의 확립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POSDCORB;

PDS보다 세부적인 경영의 순환 과정이다.

Planning 기획 계획

Organization 조직화

Staffing 배치 전환

Directing 지휘

Control and Coordination 통제와 조정

Reporting 보고, 측정 보고

Budgeting 예산 관리

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국제회계기준, 국제재무보고기준,

KIFRS;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

특징;

1. 재무제표 종류 변경;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포괄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연결재무제표,

(주석으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작성)

2. 연결재무제표 위상 격상. 부속 명세서에서 주 재무제표로.
3. 작성 형식에 융통성 부여..일정한 제한 예상
4. 공정가액 평가 범위 확대
5. 금융 상품 관련 회계처리 강화 및 보충
6. 2009년부터 임의 사용 가능, 2011년 상장 법인 강제 시행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기업명칭 기간(기말 특정일 현재) 단위()

차변	대변
자산	부채
	자본

자산=부채+ 자본대차대조표 방정식, 회계 등식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학습용 계정식 임)

기업명 기간(-) 금액

차변	대변
비용	수익

수익-비용=이익 (당기순이익)....손익계산서 방정식

#손익계산서는 기본적으로 보고식으로 작성한다.
Different Profit for Different Purpose.